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영향의 경로구조 연구

김 연 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영향요인을 밝혀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방안과 정책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 양육의 질, 또래 관계, 자존감, 학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직, 간접적 영향력의 정도와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였다. 중도탈락의도에 청소년의 자존감과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의 질과 또래관계 등의 관계요인들은 직접적 영향보다는 이들 개인 내적요인들에 매개되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 실천·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중도탈락, 학교중도탈락영향요인

* 대구대학교

I. 서 론

2009년 2월 현재 19세 이하의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2,365명으로 남한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09). 현재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숫자는 크지 않지만 최근 2-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수년 내에 북한이탈청소년의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유입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응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탈북과 남한 입국과정에서 경험한 기아, 사고, 학대로 인한 신체적 외상에 노출, 체포나 복송에 대한 공포, 가족의 상실, 그 이외의 다양한 심리·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같은 난민으로서의 특성들로 인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황순택, 2008;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갖는 적응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학교 적응의 문제, 특히 높은 학교 중도탈락의 문제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박윤숙·윤인진, 2007; 정향진, 2005; 김미숙, 2005; 정병호·양계민·이향규 외, 2006; 이기영, 2002).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률은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에 달하고 있어서 학교중도탈락이 갖는 단기적,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중도탈락은 한 청소년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Richman, Bowen, & Wooley, 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남한사회에서 사회경제적 통합문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데(통일부, 2009),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적응문제는 동일한 맥락에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아야 하겠다.

기존의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이기영, 2002; 금명자 외, 2004; 김미숙, 2004; 정병호 외, 2004; 정향진, 2005; 박윤숙 외, 2007)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학교적응 과정에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와 이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비해, 김연희(2009)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개인의 성별, 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 학업성취능력 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들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양육능력이나 또래관계, 가족의 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은 학교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의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와 같은 관계의 중요성이 지적된 것과 다른 것이다(조은정·이혜경, 2007; 이정은·조미형, 2007; 강유진·문재우, 2005;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3; 류경희, 2003; 유성경·이소래, 2001, Fortin, Marcotter, Potvin, Royer and Jolly, 2006; Lagana, 2004; Alexander et al., 2001; 조미형·최상미·엄태영, 2006; 유선미, 2007, Hymel, Rubin, Bowden and LeMare, 2007).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행동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고립된 사건이거나, 청소년 개인 내적 특성의 결과라기보다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일련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Brooks-Gunn, Guo, and Furstenberg, 1993; Garnier, Stein and Jacobs, 1997, Alexander, Entwisle and Kabbani, 2001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에서 학교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던 환경적 영향 요인들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현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현상을 두 변인 사이의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설명해온 과거의 연구들보다는 변인들 간의 영향을 과정과 경로로 분석하려는 최근의 과정 지향적 접근(process-oriented approach: POA)방식의 연구 추세와도 부합한다(Cummings, Davies and Campbell, 2000).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

북한이탈청소년들과 국외의 이주/난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학교중도탈락행동의 영향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1) 자아존중감

난민/이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 또는 비행화는 학업능력 자체보다는 또래관계에서 주변인화(marginalization), 고립화의 경험과, 교사의 낮은 기대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때문이라고 하였다(Sivan, Koch, Baier & Adiga, 1999; Wallitt, 2008). 이주/난민 청소년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언어·문화적 차이가 주변인화의 큰 이유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수민족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에서도 소속감의 결여, 고립화로 인한 내면화된 자존감의 상실이 중도탈락의 주된 영향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Elmer & Pike, 1997). 또한 난민 청소년들에 갖은 외상경험도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도탈락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ivan et al., 1999).

북한이탈청소년들도 다양한 이유로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학교 중도탈락의 주요 기여요인으로 나타났다(정병호 외, 2004; 이향규, 2006; 문성호, 2005; 김미숙, 2004; 이기영, 2002).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기아, 폭력, 감금, 범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경험(금명자 외, 2004; 이기영, 2002), 성장기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발육부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상과 열등감(이향규, 2006), 남한 학교에서 학업부진문제(이향규, 2006) 등이 있다.

국내외의 청소년 중도탈락이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주요 영향요인 중 하나로 개인 심리내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내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자기신뢰 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요인이 되며(윤옥경, 2008; 권순용·양연숙, 2007; 백혜정, 2007; 문은식, 2005; 양순미·유영주, 2003; 이훈진, 1999,

박현선, 1999), 반면 공격성과 같은 개인의 충동성 관련 변인들은 학교부적응의 요인으로 밝혀졌다(문은식, 2005; 박성연·강지훈, 2005). 국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존감, 사회기술, 공격성, 우울이나 불안,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수준과 같은 청소년 개인 내적특성이 중도탈락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Cairns, Cairns and Neckeman, 1989; Finn, 1989; Alexander et al., 2001; Fortin et al., 2006). 그 중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개인 심리내적 특성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 부모-자녀 관계와 지도감독 능력

부모-자녀관계는 이주·난민청소년의 학교적응 또는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가족의 응집력, 부모-자녀 간 관계의 상호성(mutuality)(Kaplan, Turner and Badger, 2007),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표현 정도, 가정과 학교 간에 교육에 대한 가치 부여의 일관성,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Sivan et al., 1999; Bhattacharya, 2000; Newman, Myers, Newman, Lohman & Smith, 2000)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들이 남한에서 성공하기를 바라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격려, 지도·감독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기영, 2002). 또한 상당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에서나 탈북과정에 다양한 이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하였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청소년들도 많은데 이들 무연고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사회부적응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가호 외, 2003; 길은배·문성호, 2003). 부모·자녀 세대 간에 남한 문화에 동화하는 속도가 달라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것 또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기영, 2002, Lee, 1988).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이 일반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은정 외, 2007; 이정은 외, 2007; 강유진 외, 2005; 유안진 외, 2003; 류경희, 2003; 유성경 외, 2001, Fortin et al., 2006; Lagana, 2004; Alexander et al., 2001). 선행연구에서 가족관계의 특성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능력, 교육에 대한 기대의 의사소통 등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중도탈락에 예방하는데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부모의 지도 감독 능력이 학교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또래 애착

이주/난민 청소년들이 겪은 빈곤이나 외상경험은 사소한 좌절 경험에도 공격성, 분노 표출로 이어져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다시 비행집단과의 교우관계로 이어지고, 이는 학교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dberg, 1999; Nesman, 2007; Wallitt, 2008). 북한이탈청소년들 또한 정신적 외상 경험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도감독이 없는 성장과정으로 인해 형성된 공격성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아통제의 어려움도 사회적 관계 형성, 특히 또래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향규, 2006).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동급생과의 연령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는 학교부적응의 큰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이기영, 2002; 정병호 외, 2004; 이수연, 2008). 최근까지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수학능력에 따라 학년에 배정되어 평균 실제 연령보다 2년 정도 낮은 학년에 편성되어 왔고, 심한 경우 실제 연령과 학년 간에 6살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이들의 학교 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여러 관계 요인들 중에서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형 외, 2006). 또래 애착은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을 저하시키는가 하면(이정은 외, 2007), 반대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는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선미, 2007, Hymel et al., 2007).

4) 문화적응스트레스

동남아 난민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과 학교 간에 이중 문화권을 넘나들며 생각, 태도, 행동을 조정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드러나지 않는 소수자(invisible minority)로서 학교로부터의 무관심과 교사들의 낮은 기대 등을 경험하는 것이 주된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이며, 학교중도탈락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Wallitt, 2008). 또 다른 소수민족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교사회에서의 고립감, 학교 내에서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과 같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 중도탈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mer & Pike, 1997).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소외와 주변인화 경험이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이기영, 2002; 유가호 외, 2003; 정진경 외, 2004).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행동과 언어를 사용과 같은 갈등 대처방식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강화하게 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내외에서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중도탈락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정병호 외, 2004; 정진경 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5) 이주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주청소년의 성별은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 중에는 남학생들이 학교 중도탈락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2009). 일반 청소년의 중도탈락행동에도 성별은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 중도탈락이나 학교 부적응행동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 외, 2007; Lagna, 2004).

이주청소년 가족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학교적응 또는 중도탈락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an et al., 1999). 난민청소년 중에는 가족이 빈곤하여 청소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하거나 비행집단에 가입하게 되는 것도 학교 중도탈락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었다(Goldberg, 1999; Willitt, 2008).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학교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

연희(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정서, 사회, 학업 적응에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영향요인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인 점을 고려하여 이 변인의 영향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난민의 정착지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은 정착지에서 정착기간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Beiser and Hou, 2006), 국내의 성인 북한 이탈주민 연구에서는 정착기간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2006; 박윤숙 외, 2007; 엄태완, 2004).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남은 정착기간은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2009).

2. 요인 간의 영향의 관계

1)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자녀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낮은 자존감은 내재화와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사라·박혜원, 2005; Donnellan, Trzentsniewski, Robins, Moffitt, and Caspi, 2005; Rubin, Dwyer, Kim, Burgess, and Rose-Krasnor, 2004; Hay and Ashman, 2003; MaCormick and Kennedy, 1993). 이주청소년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자존감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부모로부터의 격려와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plan, et. al, 2007; Motti-Stefanidi et. al., 2006).

부모-자녀 관계는 또한 이주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가치나 문화가 청소년의 학교에서 경험하는 기대와 유사할 때, 청소년이 주류문화에 적응과 통합수준이 높으며, 학교적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otti-Stefanidi et al., 2008; Kaplan et al., 2007; Bhattacharya, 2000). 반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이주사회로부터의 차별경험

과 함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Smokowski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중도탈락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매개되어 중도탈락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주/난민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역동적인 변인으로, 또래관계에서 애착은 자존감의 향상을 가져다주지만 비행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man et al., 2000).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원이며, 자아개념의 준거 틀이기에, 또래집단과 애착관계에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정미·김미란, 2003; Baldwin and Hoffmann, 2002).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현화된 문제(Bosaki, Dane and Marini, 2007; Hymel et al., 2007)와 공격성이나 중도탈락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Rubin et al., 2004)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청소년이 자신의 문화집단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갖게 될 때 이는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driessen & Phaet, 2002; Motti-Stefanidi et al., 2008). 이는 또래관계란 사회적 지지체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중도탈락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존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로로 중도탈락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개인이 인지하는 내적, 외적 자원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azarus & Folkman, 1984; D'Zurilla and Nezu, 1999). 자아존중감은 가장 자주 지적되는 심리 내적 자원으로서 국외의 이주자 연구나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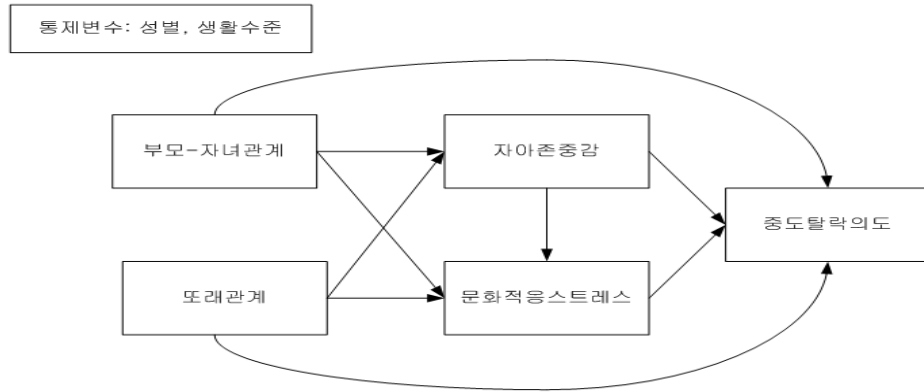
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가치관, 자아존중감, 언어능력 등의 내적 자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Ward and Kennedy, 1994; 진미정·이순형, 2006; 권복순, 2009). 국외의 이주 청소년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저하시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과 같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자원을 축적하는데 투입할 에너지나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mart and Smart, 1995).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행동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학생의 학교 중도탈락의사를 학교중도탈락의 대치변수로 사용하였다¹⁾. 그림 1은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본 연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 의도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또래와의 애착관계라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개인내적 특성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두 관계 요인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의해서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라는 개념적 구조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에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성별과 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실행 의도는 행동화를 예측하는 주된 변인이라고 하며, 여러 실증적 연구들의 메타분석에서 그 설명력이 입증되었다(Sheeran & Orbell, 1999, Fife-Schaw, Sheeran & Norman, 2007, 김금미, 정해숙, 정경아, 2007).



[그림 1]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의도 영향의 경로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재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한다. 조사기간인 2007년 1월 현재 중·고등학교 연령(14~20세)에 속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총 635 명이고, 그 중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총 346명(교육인적자원부, 2007.1)이었다.

기존의 북한이탈청소년연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크기에 전국적인 표집을 시도하였다. 먼저, 교육청 차원의 협조를 얻어 시,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총 79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무부장/담당교사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하여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53명의 재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소재가 파악된 총 지방거주 재학생의 67%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교육청의 공식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었던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각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청소년 프로그램, 교육보호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수도권 참여자 89명을 합하여 총 14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12월5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

지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확률표집을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가 아직도 갖는 제한점이라고 하겠으나²⁾ 조사 시점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의 30~41%에 해당하는 숫자가 참여함으로 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개선하였다고 하겠다.³⁾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학교 중도탈락 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자경 외(2001)가 자퇴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8개 문항 중에서 중도탈락의도의 강도에 대한 3문항, 계획된 행동의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2문항, 총 5문항만을 선택하였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척도의 설문항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사용한 문항에는 “학교를 그만 둘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막연한 생각부터 “학교를 그만 둘 때 주위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단계적으로 물었다.

2) 독립변수

(1) 부모 양육의 질 척도

부모양육의 질은 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묻는 6문항과 부모의 지도감독 능력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또래애착 척도

청소년 패널에서 사용한 또래애착척도로서 친구들과의 친밀감의 정도를 묻는 4개의

2) 2008.4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학교에 북한이탈청소년의 73%가 재학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인가, 비인가 대안학교재학생들이 학교의 방침이나, 학생회의 결정으로 인해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안학교 재학생들을 제외할 때, 본 설문참여자의 63% 수도권 거주자, 47% 기타 지역 거주 비율은 북한이탈청소년 전국분포와 유사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8.4월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471명이었다. 이는 본 연구가 수행된 2007년 12~2008년 2월의 기간 중 재학인원의 추산의 근거가 된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애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자아 존중감 척도

자아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Rosenberg가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Gloria와 Robinson-Kurpius가 개발하였고 정재훈·최혜지가 번안한 Cultural Congruity Scale의 13문항 중 북한청소년 전문가 3인의 지문을 통해 문화, 사고, 생활습관, 가치관, 정체성의 일치성과 관련한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공릉복지관 외, 2007). 이 외에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 연구에서 남한 학교적응과정의 어려움으로 가장 되풀이 되어 언급된 “동급생과 연령 차이”와 “남한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의 두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 하여 총 7개의 문항으로 남한 학교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의 예로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내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가족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달라져가고 있다고 느낀다” “북한출신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등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문화적응의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응답자의 성별과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주요변인과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신뢰도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측정도구와 신뢰도

	사용 척도	출처	신뢰도
종속변수	중도탈락의도	구자경 외(2001)척도의 수정 · 재구성	.94
독립변수	부모 양육의 질	청소년 패널 연구. 부모 · 자녀관계의 질과 지도감독 능력 총 10문항	.89
	또래 애착	청소년 패널 연구. 또래 애착 4문항	.8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62
	학교문화적응	Gloria & Robinson-Kurpius의 척도 중 5 문항과 연구자의 2문항으로 재구성	.75
통제변수	성별		
	생활수준	가족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 중에서 기술적 통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 등은 SPSS 14.0을 사용하였다. AMOS 6.0을 사용하여 조사참여자의 학교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의 직접 · 간접효과와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경로 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최대 우도추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 100사례, 또는 변수 당 최소 10사례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에 근거할 때, 142 사례는 충분하다고 보겠다(김계수, 2004, Kline, 1998).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 값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의 간명성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상대적합도 지수들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보고하였다. RMSEA는 0.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고, CFI와 TLI는 0.9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김계수, 2004).

IV. 주요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북한이탈청소년 학생 총 142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학생 72명, 여학생이 70명이었으며 평균 만 연령은 16.9세이었고, 평균 교육연수는 8.2년이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을 경우보다 평균 1.8년이 적어, 탈북과 3국을 경유하는 이주 과정에 교육의 단절을 경험한 결과일 것이다. 남한 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75%가 동급생과 2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통계치와 유사한 결과이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지역거주 청소년이 53%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인천 등 광역시 거주 청소년응답자들이 27%를 차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집중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평균 남한거주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구조를 보면, 47.9%(68명)가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29.6%(42명)가 한부모와 살고 있으며, 응답자의 21.8%(31명)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탈북과 남한 유입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나 가족의 상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중간’이란 응답이 56.3%(80명), ‘하’란 응답이 29.6%(42명), ‘상’이란 응답이 8.5%(12명), ‘최하’가 4.9%(7명), ‘최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을 보면 58.5%(83명)이 중학생이었고, 16.9%(24명)가 일반고 재학생, 6.3%(9명)이 실업계 고등학생, 18.3%(26명)가 대안학교 재학 중으로 나타나서 전체 북한이탈청소년의 재학상황과 유사한 학제 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42)

변수	내용	빈도(%)	변수	내용	빈도(%)
성별	남	72(50.7)	가족구조	양부모	68(47.9)
	여	70(49.3)		한부모	42(29.6)
연령	16.9 (SD=2.85)			부모 없음	31(21.8)
교육연수	8.2년 (SD=2.93)		경제지위	최상	1(0.7)
남한거주기간	3.8년			상	12(8.5)
거주지역	서울	74(52.1)		중	80(56.3)
	경기	6(4.0)		하	42(29.6)
	인천	8(5.3)		최하	7(7.9)
	부산	15(10.5)	학교유형	중학교	83(58.5)
	대전	15(10.5)		인문고등	24(16.9)
	기타	24(18.5)		실업고등	9(6.3)
				대안학교	26(18.3)

2. 측정변수의 검토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 각 -0.039~1.941, -0.665~9.842로 절대값이 3미만,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적절하였다(Kline, 1998:8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15~0.42로 0.8을 넘지 않았고, 외생변수들 간의 관계가 내생변수인 학교중도탈락의도와와의 상관관계보다 높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또 이들 외생변수들을 학교중도탈락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분산팽창계수(VIF)도 1.03~1.23으로 6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김두섭·장남준, 2000: 216).

본 경로분석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3> 제시하고 있다. 부모양육의 질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중도탈락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부모양육의 질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중도탈락

의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모든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중도탈락의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둘 다 $p=.000$ 에서 유의하였다. 학교중도탈락 의도는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학교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그 방향성도 예측되었던 구도와 일관되었다.

<표 3>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n=142$)

	부모양육의질	또래 애착	자아존중감	적응스트레스	중도탈락의도
부모양육의질					
또래 애착	.145				
자아존중감	.145	.327***			
적응스트레스	-.175*	-.279***	-.322***		
중도탈락의도	-.062	-.309**	-.384***	.424***	
평균	3.271	4.108	3.565	2.811	1.988
표준편차	.683	.626	.698	.593	.593

<.01, *<.001

3. 북한이탈청소년 중도탈락의도 영향요인의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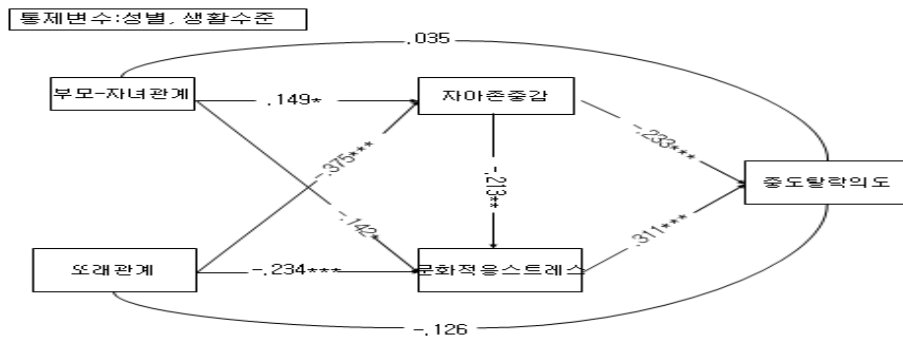
1) 기본분석모형과 수정모형의 검토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과정에 관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간명하게 한 간략모형을 검토하였다. 기본경로방정식 모형(full model)의 적합도는 <표 5>가 보여주듯이 $\chi^2=11.761(df=9, p=0.227)$ 으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TLI=.926, CFI=.968, RMSEA=.047)도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림 2]의 모형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부모의 양육의 질과 또래관계 애착이 중

4) RMSEA가 적을수록 제시된 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0.05~0.08이면 적당한 모형으로 보며, TLI와 CFI는 0.9이상이면 잘 맞는 모형이라고 본다(김계수, 2004:408-409).

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학교 중도탈락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05$, ** $<.01$,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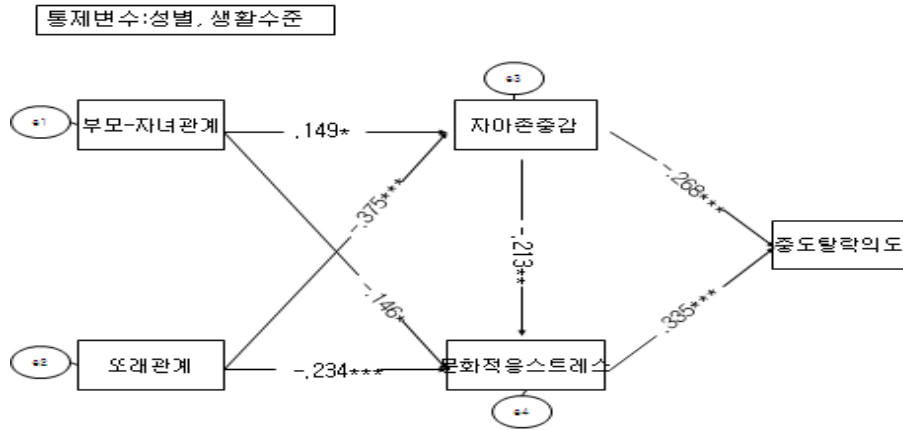
[그림 2] 기본 경로분석 모형(경로계수: 표준화계수)

[그림 2]의 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trimmed model)은 [그림 3]과 같다. 수정모형도 $\chi^2 = 14.415(df=11, p=.211)$ 로서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TLI=.925, CFI=.961, RMSEA=.047)도 모두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기본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TLI와 CFI 값은 큰 변화가 없었고, RMSEA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두 모형의 구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p=.221$ 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은 동일한 것으로 검증되었다.⁵⁾

<표 4> 기본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

	χ^2	TLI	CFI	RMSEA
기본모형	11.761 (df=9, p=.277)	.926	.968	.047
수정모형	14.415 (df=11, p=.211)	.925	.961	.047

5) 카이제곱 차이 검정은 카이제곱 차이($\Delta\chi^2 = \chi^2_1 - \chi^2_2$)와 자유도의 차이($\Delta df = df_1 - df_2$)의 유의수준으로 결정한다(김계수, 2004:427).



*<.05, **<.01, ***<.001

[그림 3] 최종수정모형(경로계수: 표준화계수)

기본분석모형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의 질과 또래관계 애착은 청소년의 중도탈락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 수정모형에서 이들 두 변인의 직접적인 영향 경로를 제거하였을 때, 부모의 양육의 질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중도탈락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이 다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중도탈락의도에 강한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의 질이 높으면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중도탈락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북한이탈청소년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과 부적 관계에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도탈락의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낮추

6) 부모자녀관계-a->자존감-b->문화적응스트레스-c->중도탈락의 2단계 매개효과 $M=a*b*c$ 를 M-plus로 검증하였을 때, $p=.02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자아존중감->중도탈락, 부모자녀관계->문화적응스트레스->중도탈락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둘 다 $p=.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중도탈락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외생변수인 북한이탈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양육의 질과 마찬가지로, 또래애착 그 자체가 중도탈락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수준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수준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자아존중감 수준은 중도탈락의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수준이 높은 북한이탈청소년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다시 중도탈락의도를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적게 영향을 받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도탈락의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 애착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중도탈락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험수준은 낮으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 때, 학교중도탈락의사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2) 구조모형의 간접 및 직접효과 분석

〈표 5〉는 구조모형의 이론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총 효과를 분해한 결과이다. 학교중도탈락의도에 대한 외생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보면, 총 효과는 자존감(-.340,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 (.335, $p<.001$), 또래애착(-.314, $p<.001$), 부모양육의 질 (-.100, $p<.01$)의 순서였다. 학교중도탈락의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 (.335, $p<.001$), 자존감(-.268, $p<.001$)의 순서였으며, 부모양육의 질과 또래 애착이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중도탈락의도

7) 또래애착→자존감→문화적응스트레스→중도탈락의 2단계 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애착→자존감→중도탈락, 또래애착→문화적응스트레스→중도탈락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 검증했을 때, 둘 다 $p=.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간접효과는 또래애착(-.206, $p<.001$), 부모양육의 질(-.100, $p<.01$), 자존감(-.071, $p<.01$)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중도탈락의도에 가장 큰 영향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인 자존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 다음으로 큰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관계 특성으로 부모양육의 질과 또래 애착은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않으나, 자존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중도탈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 중에서 또래와의 관계의 영향이 학교중도탈락의도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양육의질→자존감	.149	--	.149
부모양육의질→문화적응스트레스	-.146	-.032	-.178
부모양육의질→중도탈락의도	--	-.100	-.100
또래애착→자존감	.375	--	.375
또래애착→문화적응스트레스	-.234	-.080	-.314
또래애착→중도탈락의도	--	-.206	-.206
자존감→문화적응스트레스	-.213	--	-.213
자존감→중도탈락의도	-.268	-.071	-.340
문화적응스트레스→중도탈락의도	.335	--	.335

V.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높은 학교중도탈락이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영향관계의 기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기여는 학교 중도탈락 현상에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틀을 북한이탈청소년에 적용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론적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변인과 관계라는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의 정도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영향력의 크기와 영향관계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이들의 학교 중도탈락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과 유사하게 부모양육의 질, 또래관계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중도탈락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입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주요요인들의 영향력의 정도와 영향의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학교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내적 특성들이 중도탈락의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개입전략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첫째,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신적 문제의 조기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심리·정신적 문제는 하나원 재원 기간 동안에 일차적인 스크리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위험군 학생들의 정서적 적응과 안녕을 도모하며, 학교중도탈락이란 일탈적 행동으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한다(김연희, 2009). 둘째, 청소년의 학업능력이 학교중도탈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육지원서비스는 적절한 개입이 될 것이다. 남한 유입초기에 1:1의 교육지원 서비스, 사교육 바우처 제도, 안정적인 멘토링/튜토링 서비스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제안되고 있는 개입 방안들이다(김연희, 2009).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 양육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보다 지도·감독 능력이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Sheck, 2002; Wickrama and Bryant, 2003), 북한이탈청소년 부모교육은 효과적인 지도감독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매개되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중도탈락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래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돕고 학교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은 이들 청소년들의 남한 문화의 적응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겠다. 남한 학교적응초기에는 북한이탈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 간에 동질문화집단 안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남북 청소년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지지기반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잘 구조화되고 지도감독이 잘 된 환경에서 남한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사회기술과 남한청소년 놀이문화를 익혀 갈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자존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되는데,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태도에 부모와 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Kalesan, Stine and Alberg, 2006; Rodgers and Chabrol, 2009; Herring and Wahler, 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숫자가 많은 학교에서 남북한 학생들 간의 갈등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한 개입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제 집단,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기여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적 차원에서 자존감 향상과 남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개선도 또 다른 방안이 되겠다. 최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이중문화 경험에 관한 연극, 문학, 영상제작물을 제작하고 시민교육의 매체로 활용하는 활동이 좋은 예가 되겠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으로는, 기존의 북한이탈청소년 연구가 수도권 중심의 편의표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무작위표집을 할 수 없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횡단연구 자료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떤 순차적, 순환적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

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관찰할 때만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기에, 차후에 종단적 연구 설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사용된 척도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언어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또 설문지를 짧게 하기 위하여 전체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어, 연구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여야 하며, 일반화에 한계가 되겠다. 후속연구에서 척도의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넷째, 의도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있지만,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도와 탈락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 제41호, pp.283-315.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2007). 노원구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구자경·홍지영·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 욕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pp.1-54.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 권순용·양연숙(2007).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학업동기,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3호, pp.115-129.
- 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2호, pp.295-308.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김계수(200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김금미·정해숙·정경아(2007). 공무원의 양성평등행동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제72권 제1호, pp.189-223.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연희(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 김연희(2006).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검찰청(2000). 200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 문성호(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 목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1호, pp.5-17.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219-241.
- 박성연·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6권 제1호, pp.1-14.
- 박윤숙·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41집 제1호, pp.124-155.
-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pp.195-216.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357-373.
- 북한이탈주민 후원회(2001). 생활실태, <http://www.dongposarang.or.kr/>
- 양계민·황순택(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9호, pp.338-358.
- 양순미·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9호, 통권 187호, pp.121-134.
- 엄태완(2005).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정신건강 전략-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주민, 일반주민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p.297-324.
- 유가효·방은령·한유진(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5호, pp.185-196.
- 유선미(2007). 청각장애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 유성경·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3권 제2호, pp.187-205.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161-180.
- 윤옥경(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

- 연구, 제38호, pp.107-138.
- 이경희·배성우(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1-28.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6호, pp.175-224.
- 이사라·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5호, pp.163-181.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1호, pp.81-113.
- 이정은·조미형(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7호, pp.79-102.
- 이향규(2006). 새터민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가을-겨울, 제21호.
-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양계민·이향규·임후남·황순택(2004).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교육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4).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pp.209-239.
-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 제1호, pp.81-111.
- 조미형·최상미·엄태영(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에착과 학교생활적응 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5권, pp.81-97.
- 조은정·이혜경(2007).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4호, pp.59-80.
- 진미정·이순형(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7호, pp.141-152.
- 최정미·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73-394.
- 통일부(2007).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교육과학기술부(2008).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http://www.mest.go.kr/>
- 통일부 정착지원과(2006).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http://www.unikorea.go.kr/>
- Alexander, K. and D. R. Entwisle and N. S. Kabbani.(2001). *Teachers College Record*, Vol. 103 No. 5, pp.760-822.
- Andriessen, I., K. Phalet,(2002). Acculturation and school success: a study among minority youth in the Netherlands, *Intercultural Education*, Vol. 13 No. 1, pp.21-36.
- Baldwin, S. and Hoffman, J.(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pp.101-113.
- Beiser, M. and Hou, F.(2006). Language acquisition,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ological Medicine*, Vol. 33, pp.1321-1334.
- Bhattacharya, G.(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Vol. 35 No. 137, pp.77-85.
- Bosaki, S., A. Dane, and M. Zopito.,(2007). Peer relationship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Vol. 12 No. 4, pp.261-282.
- Brooks-Gunn, J., G. Guo, and F. Furstenberg Jr.(1993). Who drops out and who continues. beyond high school? A 20 year follow-up of Black urban youth, *Journal of Research and Adolescence*, Vol. 3 No. 3, pp.271-294.
- Cairns, R., B. D. Cairns and H. Neckerman,(1989). Early school drop-out: Configurations and determinants,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pp.1437-1452.
- Cairns, R. B., B. D. Cairns, and H. J. Neckerman,(1989). Growth and aggression: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pp.320-330.
- Cummings,E., M. Davies, and S. Campbell,(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onnellan, M., K. Trzesniewski, R. Robins, T. Moffitt and A. Caspi,(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Americal Psychological Society*, Vol. 16 No. 4, pp.328-335.

- Dupper, D. and K. S. Davis.(2004).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 overlooked factor in school dropout.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 9 No. 1/2, pp.179-193.
- D'zurilla and Nezu.(1999). *Problem-solving therapy: a social competenc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2nd ed.)*. New York: Springer.
- Elmers, M., G. Pike.(1997). Minority and nonminority adjustment to college: differences or similariti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38 No. 1, pp.77-97.
- Fortin, L. D. Marcotte, P. Potvin, E. Royer and J. Joly.(2006). Typology of students at risk of dropping out of school: Description by personal, family and school facto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Vol. 21 No. 4, pp.363-383.
- Goldberg, M.(1999). Truancy and dropout among Cambodian students: results from a comprehensive high school, *Social Work Education*, Vol. 21 No. 1, pp.49-63.
- Hay, I. and Ashman, A.(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Vol. 50 No. 1, pp.272-284.
- Herring, M and R. Wahler.(2003). Children's cooperation at school: The comparative influences of teacher responsiveness and the children's home-based behavior, *Journal of Behavioral Education*, Vol. 12 No. 2, pp.119-130.
- Hymel, S., K. Rubin, L. Rowden and L. LeMare.(2005).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Vol. 61, pp.2004-2021.
- Kalesanm B., J. Stine an A. Alberg.(2006). The joint influences of parental modeling and positive parental concern on cigarette smok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6 No. 8, pp.402-407.
- Kaplan, C., S. Turner and L. Badger.(2007). Hispanic adolescent girls' attitudes toward school,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24 No. 2, pp.173-193.

- Kline, R.(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agna, M.(2004). Protective factors for inner-city adolescents at risk of school dropout: Family factors and social support,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 26 No. 4, pp.211-219.
- Lazarus, R. and S.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E.(1988). Cultural factors in working with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11, pp.167-179.
- McCormick, C. and Kennedy, J.(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pp.1-18.
- Motti-Stefanidi, F., V. Pavlopoulos, A. Masten,(2008).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in Greek urb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43 No. 1, pp.45-58.
- Nesman, T.(2007). A participatory study of school dropout and behavioral health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Vol. 34 No. 4, pp.414-430.
- Newman, B., M. Myers, P. Newman, B. Lohman, V. Smith.(2000).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for academically promising, urban, low-income African American youth, *Adolescence*, Vol. 35 No. 137, pp.45-66.
- Richman, J., G. Bowen, and M. Wooley.(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interactional-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 Rodgers, R. and H. Chabrol.(2009). Parental attitudes, body image disturbance and disordered eating amongst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Vol. 17 No. 2, pp.137-151.
- Rubin, K., K. Dwyer, A. Kim, K. Burgess, and L. Rose-Krasner.(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4 No. 4, pp.326-356.

- Silvan, A., L. Koch, C. Baier, M. Adiga.(1999). Refugee youth at risk: a quest for rational policy,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and Practice*, Vol. 2 No. 3, pp.139-158.
- Sheeran, P. and S. Orbell,(1999). Implementation intentions and repeated behavior: augmenting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9, pp.349-369.
- Shek, D.(2002). The relation of parental qualiti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30, pp.215-230.
- Smart, J. and Smart, D.(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3.
- Smokowski, P. and Bacallo, M.(2007). Acculturation, internalizing mental health symptoms, and self-esteem: Cultural experiences of Latino adolescents in North Carolina,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 37, pp.273-292.
- Wallitt, R.(2008). Cambodian invisibility: students lost between the "Achievement gap" and "the model minority", *Multicultural Perspectives*, Vol. 10 No. 1, pp.3-9.
- Ward, C. and A. Kennedy,(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8 No. 3, pp.329-343.
- Wickrama, K. and C. Bryant.(2003). Community context of social resourc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5, pp.850-866.

ABSTRACT

A Pat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chool Drop-out Inten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 Youth

Kim, Yeun-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ropping-out of school by North Korean defector youth. In addition, our attention also focused on the structure of these path ways, so as to generate recommend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the resettle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based upon these findings to ameliorate these high school drop-out rat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lationship factors such as the qu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er attachment, and personal attributes such as self-respect and acculturation, stress levels on school drop-out intentions and the mechanisms influencing these factors. The drop-out intention was used as a proxy for drop-out behavi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elf-respect and acculturation stress were the two strongest influencing factors among the four predictor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er attachment did not exert any direct effect on drop-out intentions but contributed to the drop out intention indirectly, mediated by self-respect and acculturation stre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research, social work practice and government policies are also discussed.

* Daegu University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youth, school drop-out, drop-out intention,
path analysis

투고일 : 11월 15일, 심사일 : 1월 21일, 심사완료일 : 2월 9일

